

# 2015년 10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 결과 및 대응방안

■ 김성웅\* · 한동교\*\*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및 ICT 발전을 논의하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를 개최하고 결과물로 TEL 전략실행계획 2016~2020을 채택하였다. 동 전략실행계획은 ICT 혁신, ICT 환경, 역내 경제통합, 디지털경제 발전, 협력 강화 등 ICT 분야 이슈를 핵심 우선분야로 채택하고, 향후 세부 목표 및 행동전략에 대한 회원경제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보고는 동 전략실행계획이 성안되게 된 배경 및 경과, 장관회의 결과물로서의 의의 및 세부내용 검토, 이전 장관선언문과 전략실행계획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및 의제논의 전략, APEC 정상선언문과의 연계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 목 차

I. 서 론 / 2

II. APEC TELMIN10 개요 / 3

1. 배경 및 의의 / 3

2. TELMIN10 추진경과 / 10

III. APEC TELMIN10 결과 / 12

1. 전략실행계획 세부내용 분석 / 12

2. TEL의 후속 추진조치 / 18

3. 한국의 정책 성과 / 24

IV.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 27

1. APEC 2015 정상선언문 및

각료선언문에의 연계 / 28

2. APEC TEL 활동 관련 정책적 대응 / 2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43)531-4436, woongnice@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316, tongyohan@kisdi.re.kr

## I. 서 론

아·태지역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의 ICT 분야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 of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이하 TELMIN)<sup>1)</sup>가 3월 30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10차 정보통신장관회의(이하 TELMIN10)는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KKMM) 주최로 21개 APEC 회원경제 정부, 기업 및 기관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여, 'ICT -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주제 하에 ICT 혁신, ICT 환경, 경제통합, 디지털경제 및 협력 등 다양한 세부이슈를 논의하였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이전과 달리 결과물로 선언문(declaration) 대신 전략실행계획(Strategic Action Plan)<sup>2)</sup>을 도출하고, ICT 분야에서의 보다 실질적인 정책 권고 및 이행을 도모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장관선언문과 전략실행계획의 형식을 혼합하여 재구성하고, 핵심 우선 분야를 설정한 후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분야를 첨부하는 독특한 내용 및 구조를 가진 성과문서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 논의의 기반 조직인 정보통신실무그룹(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이하 TEL)이 향후 몇 년간 추진하게 될 업무 및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국제 논의 및 회원국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일~19일간 필리핀에서 개최되며 현재 정상회의 선언문 성안 작업이 개별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통신장관회의의 결과물인 2016~2020 전략실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상회의 선언문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1994년 APEC 정상회의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창설된 장관급 회의로, 2~3년마다 개최됨. 정인 역 외(2007), pp.267~268.

2) 정식명칭은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전략실행계획 2016~2020(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Strategic Action Plan 2016~2020)

또한 동 전략실행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TEL 업무를 가능해볼 수 있는 만큼, 그 세부내용 파악 및 이전의 장관선언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도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5년 10차 정보통신장관회의의 준비 경과 및 의제 논의 과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동 장관회의의 핵심 결과물인 2016~2020 전략실행계획 세부내용 및 핵심 쟁점을 분석해 본다. 또한 장관회의 및 전략실행계획에의 우리나라의 기여 및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APEC 정상회의 및 각료선언문에의 연계방안, 그리고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의제 선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APEC TELMIN10 개요

### 1. 배경 및 의의

APEC의 정보통신 분야 논의는 실무그룹회의(TEL), 고위관리회의(TELSOM), 장관회의(TELMIN)를 거쳐, 각료회의(AMM<sup>3)</sup> 및 정상회의(AELM<sup>4)</sup>로 이어지는 상향식 절차를 통해 주요 이슈 논의가 진행된다.<sup>5)</sup> 반대로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의 결과물이 실무그룹회의의 논의 이슈 및 업무 방향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TEL과 TELMIN은 통신 분야 정책 이슈의 인풋, 아웃풋 및 피드백 등의 상호작용이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통해 APEC 회원경제의 국내, 지역적 현안을 논의하고 역내에 확산함으로써 통신 분야의 협력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전략실행계획의 분석을 위해 TEL, TELMIN의 배경 및 그간 개최 연혁, TELMIN 결과물의 특징 및 의의 등의 내용과 장관회의 추진 과정을 검토한다.

3) 각료회의(APEC Ministerial Meeting, AMM)는 분야별 장관회의와 구분되는 전체 장관회의를 의미하며 각료선언문을 채택

4)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ELM)는 매년 의장국에서 개최되며 결과물로 정상선언문을 채택

5) 남상열(2012), p7.

(1) TEL 및 TELMIN 연혁

우선 TELMIN을 주최하는 TEL의 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 5월 APEC 고위관리 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결정에 따라 미국을 초대 의장국으로 하는 정보통신실무그룹(TEL)이 창설되었다.<sup>6)</sup> 이에 따라 같은 해 싱가포르에서의 1차 TEL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2회씩 개최되어 올해 뉴질랜드 회의까지 52차례 TEL 정례회의가 진행되었다.

<표 1> APEC TEL 연혁

연도	차수	개최지	연도	차수	개최지
1990	제1차	싱가포르	2003	TEL27	말레이시아
1991	제2차	말레이시아	2003	TEL28	대만
1991	제3차	일본	2004	TEL29	홍콩
1991	제4차	인도네시아	2004	TEL30	싱가포르
1992	제5차	한국	2005	TEL31	태국
1992	제6차	미국	2005	TEL32	한국
1993	제7차	호주	2006	TEL33	캐나다
1993	제8차	필리핀	2006	TEL34	뉴질랜드
1994	제9차	홍콩	2007	TEL35	필리핀
1994	제10차	태국	2007	TEL36	칠레
1995	제11차	캐나다	2008	TEL37	일본
1995	제12차	중국	2008	TEL38	페루
1996	제13차	칠레	2009	TEL39	싱가포르
1996	제14차	대만	2009	TEL40	멕시코
1997	제15차	멕시코	2010	TEL41	대만
1997	제16차	뉴질랜드	2010	TEL42	브루나이
1998	제17차	브루나이	2011	TEL43	중국
1998	제18차	파푸아뉴기니	2011	TEL44	말레이시아

6) 우리나라는 2005년 4월부터 2년간 TEL의장국을 역임한 바 있음. 정인억 외(2007), p.270.

연도	차수	개최지	연도	차수	개최지
1999	제19차	일본	2012	TEL45	베트남
1999	제20차	페루	2012	TEL46	러시아
2000	제21차	미국	2013	TEL47	인도네시아
2000	제22차	인도네시아	2013	TEL48	미국
2001	제23차	호주	2014	TEL49	중국
2001	제24차	한국	2014	TEL50	호주
2002	제25차	베트남	2015	TEL51	필리핀
2002	TEL26	러시아	2015	TEL52	뉴질랜드

자료: APEC TEL 홈페이지 재정리

TELMIN 창설은 TEL회의를 몇 차례 진행한 상황에서 실무그룹을 넘어 고위급 차원에서 통신 이슈를 다룸으로써 정책적 이행 및 확산을 제고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인하였다. TELMIN은 우리나라가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APEC 정상 회의시 제안하여, 1995년 1차 TELMIN을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2~3년 주기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10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sup>7)</sup>

<표 2> APEC TELMIN 연혁

차수	일정/개최지	전체 주제	한국 발표주제
제1차	1995. 5. 29~5. 30 한국 서울	APII(아태정보통신인프라)를 위한 5대 목표와 10대 원칙	-
제2차	1996. 9. 5~9. 6 호주 골드코스트	APII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	-
제3차	1998. 6. 3~6. 5 싱가포르	아태 정보화사회 구현	APII의 균형 발전 방향
제4차	2000. 5. 24~5. 26 멕시코 칸쿤	통신방송 융합 혜택의 극대화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대한 한국의 정책 대응

7) 정인억 외(2007), p.268.

차수	일정/개최지	전체 주제	한국 발표주제
제5차	2002. 5. 29~5. 30 중국 상해	디지털 기회를 활용한 공동번영의 도모	APII 고도화 전략
제6차	2005. 6. 1~6. 3 페루 리마	디지털기회 활성화: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활용	정보통신인프라 강화
제7차	2008. 4. 23~4. 25 태국 방콕	디지털 기술을 통한 경제 번영 추구	방송통신위원회 출범배경 및 방송통신 정책방향 소개
제8차	2010. 10. 30~10. 31 일본 오키나와	사회경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ICT	방송 융합 환경하의 한국의 ICT 활용 신성장 정책
제9차	2012. 8. 7~8. 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ICT 활용에 있어 경제성장과 번영 촉진을 위한 신뢰 및 보안 구축	스마트생태계 환경 및 아태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의 ICT 정책방향
제10차	2015. 3. 30~3. 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ICT: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더욱 연결되고 번영하는 APEC 회원경제

자료: APEC 홈페이지 재정리

TEL과 TELMIN의 주요 어젠다는 처음에는 아태정보통신인프라(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이하 APII) Testbed 등 연구망의 역내 구축에서 시작하여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 브로드밴드 구축, 방송통신 융합 및 디지털 기회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8차~10차 등 가장 최근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성장동력 및 경제발전의 토대로서의 ICT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공통적으로 이를 핵심 이슈로 다룬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도 당시 통신분야 논의 동향 및 주제에 맞춰 다양한 이슈를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장관회의의 공통적인 맥락을 가로지르는 것은 APEC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 및 회원경제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부문의 협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sup>8)</sup>

## (2) TELMIN 결과물의 의의

TELMIN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상술했듯이 장관선언문, 전략실행계

8) 정인억 외(2007), p.268.

획 등의 결과물이 이후 TEL의 논의 의제 및 업무방향을 설정하여 회원국들의 정책적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TELMIN9 이후 TEL의 후속 동향을 살펴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에서 5가지 세션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지시사항을 TEL에서 프로젝트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이행하기로 하였다. 즉, ① 신성장 촉진을 위한 ICT 발전 ⇒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ICT 개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과 성장, 녹색 성장을 위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개발, ②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활동 제고 ⇒ 특수 인구(고령층 및 장애인)를 위한 ICT 활용 사업,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QoS(Quality of Service) 관리 워크숍, OTT 활용 방안, ③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ICT환경 촉진 ⇒ 제2차 ICT 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APEC 트레이닝 프로그램, 봇넷 예방 및 경감 프로젝트, 모바일 보안 프로젝트, 컴퓨터 안전사고대응팀(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s, CSIRT) 역량 강화 및 협력, APEC ICT 보안 프레임워크, 안전한 ICT 사용 환경을 위한 개발 방안, 인터넷 경제의 보안위험 관리에 관한 APEC-OECD 심포지움, ④ 역내경제통합 촉진 ⇒ 역내 재난 관리 및 ICT 활용, 정보 경제 발전을 위한 사물인터넷 고도화, 전자 정부 연구 센터 사업, 아태지역 정보 사회 발전 핵심 수행 지표 개발, ⑤ ICT 분야 협력 강화 ⇒ ICT 기술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한 단일 시스템 발굴 협력 프로그램, 다국어 이메일 주소 기술 확산, 아태 인터넷 자원 역량 협력 프로그램, APII Testbed 사업<sup>9)</sup> 등으로 선언문의 세부내용이 TEL의 다음 업무 수립 및 이행으로 연결되었다. 우리나라도 TELMIN9 이후 APEC 내에서 협력활동을 전개하였는 바, APEC 역내 방송통신 융합,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호 관련 협력을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 이행 및 지역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고, 이는 APII Testbed 사업, ICT역기능방지 교육프로그램<sup>10)</sup> 등의 사업 수행으로 연계되었다.

9)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차세대 인터넷 연구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중.

10) KT문화재단/숙명여대가 인터넷 역기능 예방교육을 제공한 공동 사업으로, 1차 사업은 2009~2011년, 2차 사업은 2012~2014년 까지 진행하였음.

<표 3> APEC TELMIN 주요 결과문서 비교

차수	TELMIN 결과문서		TEL 전략실행계획	특징 및 비고
	장관 선언문	첨부(Annex)		
제1차	서울 선언문	-	-	선언문에 행동 계획 내용이 포함
제2차	골드코스트 선언문	- APII를 위한 5대 목표와 10대 원칙 - 통신 자유화 요소 - APII 활동 및 시범 사업	-	선언문에 행동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 중 세부설명을 Annex로 구성
제3차	싱가포르 선언문	-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 보편적 접근 원칙 - MRA 관련 선언	-	
제4차	칸쿤 선언문	- 행동 계획	-	
제5차	상해 선언문	- 행동 계획 - 정보통신인프라 보안 선언	-	장관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Annex에 행동계획으로 추가
제6차	리마 선언문	- 행동 계획 - 브로드밴드 발전 핵심 원칙 - 원칙에 대한 협의 및 강조 - PKI기반 전자승인 가이드라인 - 스팸 가이드라인	-	
제7차	방콕 선언문	-	-	
제8차	오키나와 선언문	-	TEL 전략실행계획 2010~2015	행동 계획에 대한 내용을 Annex 수준 이상의 TEL전략실행계획2010~2015로 작성하여 선언문과 함께 채택
제9차	상트페테르 부르크 선언문	-	상동	선언문과 함께 채택
제10차	-	-	TEL 전략실행계획 2016~2020 (Annex 별도 작성)	별도의 장관선언문 없이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을 채택하고, 자세한 실행 방안을 담은 Annex를 추가

자료: KISDI 재구성



최근 장관선언문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2008년 7차 방콕 선언문은 ICT 인프라 구축 확충 및 ICT 역량 강화 등 개도국의 정책적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선언문이 구성되었으나, 2010년 8차 오키나와 선언문은 ‘ICT 자체’가 아닌 ‘ICT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및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 9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sup>11)</sup>은 8차 오키나와 선언문<sup>12)</sup>과 구조 및 주제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로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선언문의 기본 골자에 개최국 러시아의 관심사인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웹 3.0’ 등의 키워드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10차례의 지난 장관회의의 결과물은 크게 장관선언문과 전략실행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TELMIN1<sup>13)</sup>에서는 초대회의였던 만큼 장관선언문만이 성과문서로 도출되었으며, 주요 활동 분야와 함께 행동 계획도 장관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성격을 보였다. 이후 TELMIN2<sup>14)</sup>와 TELMIN3<sup>15)</sup> 선언문도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해 Annex를 포함시킨 것 외에는 TELMIN1에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TELMIN4<sup>16)</sup>, TELMIN5<sup>17)</sup>, TELMIN6<sup>18)</sup> 등 이어진 3차례의 장관회의에서는 선언문을 승인함과 동시에 Annex에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선언문은 거시적인 내용만을 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동계획”에 담는 것으로 그 구조를 달리하였다. 그러

11) 2012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 – Saint Petersburg Declaration –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2012. 8)

12) 2010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 Okinawa Declaration – ICT As an Engine for New Socio–Economic Growth(2010. 10)

13) 1995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Seoul Declaration for the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1995. 5)

14) 1996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Industry–Gold Coast Declaration(1996. 9)

15) 1998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Singapore Declaration(1998. 6)

16) 2000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Cancun Declaration(2000. 5)

17) 2002 APEC Ministerial Meeting of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Shanghai Declaration(2002. 5)

18) 2005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Lima Declaration(2005. 6)

나 이 구조에서는 “행동계획”이 장관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담지 못하는 등 두 문서간의 일관성이 떨어져, 결국 “행동계획” 자체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장관 선언문의 구체적 실행을 가로막는 단점이 있었다.

결국 TELMIN7<sup>19)</sup>에서는 다시 하나의 장관선언문 안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세부 목표 별 달성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TELMIN8에서는 장관 선언문의 주요 내용인 우선 분야를 구체화시킬 수 있고 또한 우선 분야와 일치하는 세부전략을 담아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실행 계획”을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전략의 이행 기한도 2010~2015년으로 설정하여 기존 문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목표를 나타내고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sup>20)</sup> 따라서 2012년 개최된 TELMIN9에서는 장관선언문 승인과 함께 2010년 오키나와에서 채택된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에 대한 점검만이 있었다.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에 대한 성과가 매우 높았던 것을 바탕으로, TELMIN10에서는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별도의 장관 선언문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존 장관선언문이 다루었던 거시적 목표 및 비전 등을 전략실행계획에 포함시켜 선언문의 ‘상징성’과 전략실행계획의 ‘효율성’ 및 ‘이행성’을 담은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을 승인하게 되었다.

## 2. TELMIN10 추진경과

장관회의는 크게 정보통신실무그룹회의(TEL) 및 고위관료회의(SOM)에서 준비되므로 TELMIN10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TEL 및 SOM에서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 2008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Bangkok Declaration (2008. 4)

20) 2010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APEC TEL Strategic Action Plan: 2010~2015(2010. 10)

TEL은 2012년 TELMIN9 이후 개최된 4차례의 TEL 정례회의에서 TELMIN10 개최를 위한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 작성 및 장관회의 주제 논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TEL전략실행계획 문서는 장관회의 시 장관선언문을 실행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포함하는 문서로 장관선언문과 함께 채택되었던 바 있다. 지난 TELMIN9에서는 “경제성장 및 번영 촉진을 위한 ICT 이용의 신뢰 및 보안 구축”을 주요 주제로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을 승인함과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를 함께 검토한 바 있다.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은 TELMIN8에서 최초로 승인된 문서로 TEL의 2010~2015년의 비전 및 목표를 구체적인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TEL 전략실행계획 2010~2015의 후속 문서이자 TELMIN10의 주요 성과 문서로 작성된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은 TEL47~TEL50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초안이 작성되었다. 2013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TEL47과 9월 미국에서 개최된 TEL48에서는 TELMIN9에서 채택된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의 이행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차기 장관회의 후속 문서인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의 초안 작성을 TEL49에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3년에는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에 대한 논의보다는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에 대한 점검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본격적인 논의 및 작성은 2014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된 TEL49부터 시작되었다. TEL49에서는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을 단순히 TEL이라는 실무그룹 차원을 넘어서는 문서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하고, 5가지 우선 추진 분야의 구조를 기반으로 혁신적 성장, 규제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 등 새로운 의제를 부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2014년 9월 호주에서 개최된 TEL50에서는 TEL의 우선 관심 분야로 4가지 분야(ICT 혁신 추진 및 촉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 역내 경제 통합 촉진, 디지털경제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문건 초안에 대한 각 회원경제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안 수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수정 문건은 2015년 3월 TELMIN10 직전 개최된 TELSOM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어 장관회의의 결과 문서로 승인되었다.

TELMIN10의 사전회의 형태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TELSOM에서는 TEL 전략실행계획 문서의 최종 확인 및 수정 작업을 통해 지난 TEL 회의에서 계획하였던 대로 TEL전략실행계획을 한 차원 높은 거시적 수준의 문서로 격상시키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동 과정을 통해 회원경제들은 기존 TEL전략실행계획과는 달리 핵심내용을 담은 TEL전략실행계획 본문과 세부 실행방안을 포함한 별도의 첨부(Annex)를 구분하여 작성함으로써, 거시적 목표에서 미시적인 세부 실행 방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 Ⅲ. APEC TELMIN10 결과

APEC TELMIN10의 주요 특징은 역대 장관회의와 달리, 기존의 장관선언문 대신 전략실행계획 2016~2020을 단일한 결과 문서로 채택 및 승인하였다는 점이다. 승인된 문서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은 장관선언문을 대신하여 TELMIN10의 주요 내용을 담고, 아태 지역 정보통신 발전 및 협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APEC TELMIN10의 주요 성과 문서인 “TEL전략실행계획2016~2020”의 전반적인 구조 및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이전 장관회의 결과물과 비교한 후, 이와 관련된 TEL의 후속조치 및 한국의 정책적 성과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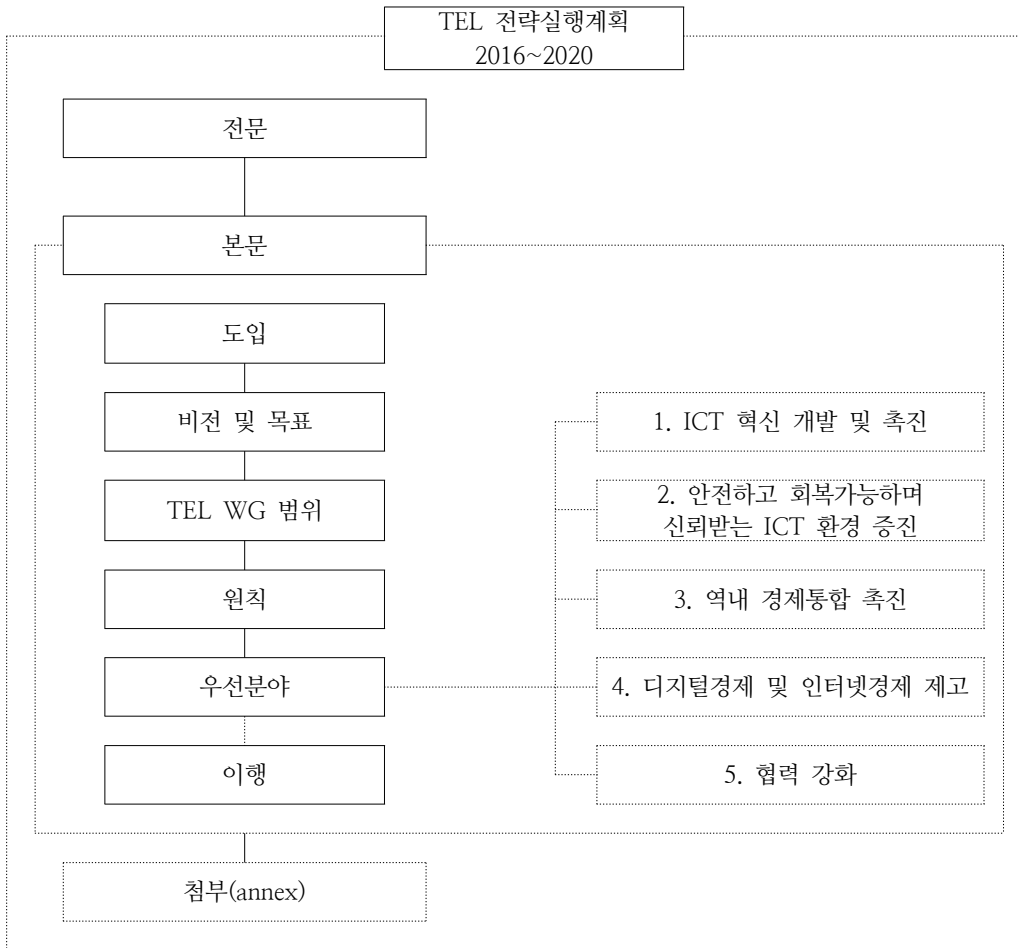
#### 1. 전략실행계획 세부내용 분석

##### (1) 구조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은 전문(preamble),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도입(introduction), 비전 및 목표(Vision and Objective), TEL 범위(Scope), 원칙(Guiding Principles), 우선 분야(Priority Areas), 이행(Implementation)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동 전략실행계획의 핵심 파트인 우선 분야는 세부 목표 및 세부행동전략을 담아 5개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6~2020 전략실행계획은 그 이행의 구체적 이니셔티브를 반영하기 위해 첨부(annex)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세부 행동전략을 담은 첨부는 높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원경제 및 TEL의 향후 방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TEL 전략실행계획 2016~2020의 구조



(2) 세부 내용

동 전략실행계획은 2020년까지 ICT 생태계, ICT의 광범위한 활용, 그리고 ICT 기

술 및 디지털 해독력 향상과 달성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고, 지역 통합 및 연결성 증진, 경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역내 ICT 인프라의 생산적 활용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objective)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TEL의 활동 범위(scope)를 TEL 핵심 역량 활용, 물류,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ICT의 적극적 도입, 디지털 경제 촉진으로 상정하였으며,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s)을 통해 위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6가지 기본 원칙은 첫째, TEL에 의해 규정된 주요 쟁점에 대한 회원경제의 충분한 헌신과 의지, 둘째, TEL 활동에 회원경제들의 적극 참여, 셋째, 정보와 경험의 열린 공유, 넷째, 능력배양 수요와 필요한 자원의 파악, 다섯째, APEC 전반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조치들의 개발 및 이행, 여섯째, 민간부문 및 관련 다자기구들과의 협력 및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TEL전략실행계획2016~2020의 핵심 내용은 우선 분야(priority areas)이다. 해당 내용은 연결성(Connectivity)을 촉진시키고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효용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첫 번째 우선 분야는 “ICT 혁신 개발 및 촉진”이다. 해당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 및 혁신적인 ICT 활용 추진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ICT 혁신 및 가치 창출 촉진,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포함한 연결성의 지속적 향상, 디지털 해독력 및 개인의 디지털 경제 참여 능력 향상, APEC 회원 경제 내 ICT 도입 증진 등이 세부 목표로 세워졌다.

두 번째 우선 분야는 “안전하고 유연하며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구축”으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지식의 확산 및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APEC 회원 경제 내 이해관계자의 위험 관리 능력, 네트워크 창출 및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하고 신뢰도 높은 환경 구축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목표로는 주요 지역 인프라의 탄력성 제고, 보안 및 사이버 위협 관리 능력 제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ICT 활용을 위한 안정 및 신뢰성 강화, APEC 회원 경제간 협력이 설정되었다.

세 번째 우선분야는 “역내 경제통합 증진”으로, 아태 지역의 연결성, 규제 일관성 그리고 기술 조화성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 행동 전략으로 ICT 인프라 품질 향상, 용이한 규제 환경 촉진 등이 있으며, 세부 목표로 물리적, 제도적 연결성의 향상 및 사람간 연결성과 온라인 연결성의 향상을 두고 있다.

네 번째 우선분야는 “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 제고”로서, 인터넷 경제 중심의 활기찬 디지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동 우선 분야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창조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ICT 산업과 기타 산업 분야의 폭넓은 융합을 실현하기 위한 TEL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세부 목표로는 ICT 산업 생태계 개선, ICT의 종합적 활용을 통한 전통 산업의 진화, 새로운 산업 발전, 발전된 서비스 산업 관련 ICT 활용 등이 포함되었다.

다섯 번째 우선분야는 “협력 강화”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더불어 그 활용을 위한 아태 지역 내외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APEC 내부 그룹과의 협력,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APEC 외부와의 협력이 세부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그룹과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었다.

### (3) 최근 장관회의 결과물과의 비교

지난 두 차례의 장관회의 주요 성과 문서와 금번 TELMIN10의 주요 성과 문서인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sup>21)</sup>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기구의 정보통신 관련 논의의 흐름 및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TELMIN8 오키나와 선언문은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와 구성 및 내용을 함께 하므로, 본 고에서는 주로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에 기반하여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의 주요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TELMIN9 장관선언문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과 TEL전략실행계획2016~2020이 가지는 차

21) 2015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APEC TEL Strategic Action Plan 2016~2020(2015. 3)

이점과 시사점을 비교 분석해 본다.

〈표 4〉 최근 장관회의 결과 문서 핵심분야 비교

		TELMIN8	TELMIN9	TELMIN10
선언문		오키나와 선언문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	-
TEL 전략실행계획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	좌동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
핵심 분야	1	신성장 촉진을 위한 ICT 발전	좌동	ICT 혁신 개발 및 촉진
	2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활동 제고	좌동	안전하고, 회복가능하며 신뢰받는 ICT 환경 증진
	3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ICT환경 촉진	좌동	역내 경제통합 증진
	4	역내경제통합 촉진	좌동	디지털경제 및 인터넷경제 제고
	5	ICT 분야 협력 강화	좌동	협력 강화

자료: KISDI 재정리

첫째,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눈에 띈다. TELMIN8에서 승인되었던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의 우선 분야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활동 제고”는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에서 “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 제고”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ICT를 활용한 사회경제활동을 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 활동으로 칭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의 우선 분야인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ICT환경 촉진”의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인터넷 경제 제고가 등장하였던 것에 비교할 때,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의 중요성이 한단계 더 높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활동 제고” 내용에 포함되었던 혁신 기술 활용, 스마트 그리드, 사회 경제 활동을 위한 ICT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 “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 제고”아



래 세부 목표 및 실행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우선 분야 “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 제고”에서는 최근의 국제기구 및 사회경제 영역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내용 및 용어가 추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 문서와는 달리 희소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 새로운 세부 실행전략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 국내외 방송통신용 주파수 할당 논의 등의 주파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 제고”는 ICT 산업 생태계(ICT industry ecosystem)의 향상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산업에 대한 관점이 개별 차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복합적인 관계-즉 생태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연결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의 우선분야 “역내 경제통합 촉진”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 기술 적합성 평가, 국제 모바일 비용 감소, 소비자 인식 제고, 해저 케이블 보호 등 다양한 방식의 통합 촉진을 각각 세부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은 3번 우선분야인 “역내경제통합 증진” 아래 해당 내용을 포함하되, 그 세부 목표를 각각 물리적 연결성, 제도간 연결성, 사람간 연결성, 온라인 연결성 향상으로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성”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초연결(hyper-connected) 사회가 도래한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다양한 통합 증진 노력이 각 영역별 연결성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며, 동시에 연결성 촉진의 시점에서 다양한 경제 통합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에서는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의 우선분야 “ICT 분야 협력 강화”의 맥락에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에서는 전문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우선분야 “ICT 혁신 개발 및 촉진”의 세부 목표로 디지털 해독력 증진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략실행계획에서는 5번 우선분야인 ICT 분야 협력 강화를 APEC 그룹 내외 차원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활동은 각 활동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체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우선분야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TEL의 후속 추진조치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은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목표 및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TELMIN10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TEL 회의에서는 우선 분야 별로 어떠한 운영 그룹(Steering Group)<sup>22)</sup>이 해당 우선 분야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각 운영 그룹 내 사업 및 향후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각 우선 분야 아래 어떠한 세부 목표를 달성 시킬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TEL은 현재 사업 현황 상 각 우선 분야에 대한 세부 목표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함과 동시에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었다. 특히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이 장관회의에서 승인된 만큼, TEL 사업 계획 및 수행시 해당 문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것은 장관회의 수준의 목표를 실무그룹 수준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APEC TEL 사업을 단순히 실무그룹회의 수준이 아닌 장관회의 수준의 높은 수준에서 계획하고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TEL 사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담당 운영그룹 설정

담당 운영그룹 설정은 장관 회의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TEL51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전략실행계획의 담당 운영그룹은 전문성과 핵심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논의 끝에 결정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운영그룹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22) APEC TEL은 3개의 운영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운영 그룹의 명과 중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자유화 운영 그룹(LSG: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회원경제의 개별 및 공동 자유화 계획을 수립하고, 통신기기 관련 경쟁 및 시장 접근을 위한 규칙 및 규제 영역을 중심 의제로 논의), ICT 개발 운영 그룹(DSG: ICT 기술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과 함께 디지털 기회를 창조하는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발전을 중심 의제로 논의), 보안 및 번영 운영 그룹(SPSPG: 서비스, 기술, 어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 등의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및 신뢰 구축을 도모하고 사이버 범죄 해결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 정인익 외(2007), pp.270~272.

<표 5>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 우선 분야 담당 운영그룹

우선 분야			담당 운영그룹
1. ICT 혁신 개발 및 촉진	1.1	ICT 혁신 및 가치 창출 촉진	DSG
	1.2	연결성(브로드밴드 접근성) 향상	
	1.3	디지털 해독력의 중요성과 공공 인식 제고	
	1.4	역내 ICT 도입 증진	
2. 안전하고, 회복가능하며 신뢰받는 ICT 환경 증진	2.1	핵심 인프라의 회복력 향상	SPSG
	2.2	보안 및 사이버 위협 관리 능력 향상	
	2.3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2.4	ICT 활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증진 강화	
	2.5	APEC 회원 경제 간 협력 강화	
3. 역내 경제통합 증진	3.1	물리적 연결성 향상	LSG
	3.2	제도적 연결성 향상	
	3.3	사람 간 연결성 향상	
	3.4	온라인 연결성 향상	
4. 디지털경제 및 인터넷 경제 제고	4.1	ICT 산업 생태계 개선	DSG, LSG, SPSPG
	4.2	ICT의 종합적 활용을 통한 전통 산업 진화	
	4.3	새로운 산업의 발전	
	4.4	서비스 산업의 ICT 활용 증진	
5. 협력 강화	5.1	APEC 내부 그룹과의 협력	DSG, LSG, SPSPG
	5.2	APEC 외부 그룹과의 협력	

자료: TEL52 총회 문서(KISDI 재구성)

특히 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 제고와 협력 강화는 중심 담당 운영그룹을 별도로 설정하기 보다는 TEL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 제고는 SOM에서 지난 9월 새롭게 발족한 “인터넷경제임시운영 그룹<sup>23)</sup>”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해당 그룹에의 기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되

23) 인터넷경제 임시운영그룹(Ad Hoc Steering Group on the Internet Economy)은 2014년 APEC

었다. 최근 개최된 TEL52에서 수석대표들은 운영그룹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 및 향후 사업을 부합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특히 달성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TEL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신규 사업 제안시 해당 사업의 TEL 기여방안 및 중요도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이 강조되었다.

## (2) TEL의 추진사업 분류

앞서 설명한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의 세부 목표 및 행동전략에의 부합정도에 따른 사업 분류는 장관회의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TEL 회의에서 각 운영그룹별로 우선 논의된 뒤 수석대표회의 및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다음의 표는 현재까지의 사업 현황과 제안된 사업 등을 부합도에 따라 배치한 표이다. 각 사업의 운영그룹 및 담당 회원경제가 나타나 있으며, 지난 두 차례의 TEL 회의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과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계속 사업, 그리고 향후 진행될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향후 진행될 사업은 APEC 승인을 통해 도입 예정인 사업과 아직 회원경제 및 운영그룹 수준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향후 실제 수행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도입 및 완료 시기와 활동 내용은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다. 아래의 분류를 통하여 어떤 분야에 보다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할 지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APEC TEL 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함도 알 수 있다.

---

정상 및 각료에 의해 도출된 “APEC Initiative of Cooperation to Promote Internet Economy”를 바탕으로 SOM에서 수행하는 운영그룹이며, ① 인터넷 경제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 ② 인터넷 경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APEC 산하조직 간 프로젝트·이니셔티브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정, ③ 인터넷 경제 및 디지털 경제를 통한 성장에 대한 APEC의 역할 증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영역 간 목표 설정 및 협력을 독려하고 있음.

<표 6>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 우선 분야의 세부사업 분류 계획

	행동 전략	사업명(담당 회원경제, 완료 기한)
<b>1. ICT 혁신 개발 및 촉진</b>		
1.1	a) 신규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협력 강화	산업원탁회의: ICT와 혁신(뉴질랜드, 2015)
	b) 이해관계자 간 협력 촉진	
	c) ICT 혁신 및 융합을 위한 정책	차세대 방송통신: 4K/8K(일본, 2016)
	d) 오픈 데이터의 활용 촉진	ICT 활용 사회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러시아, 2016)
		오픈 데이터 워크숍(싱가포르, 2017)
	e) ICT 인프라 및 투자 효율 공유	ICT 활용 사회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러시아, 2016)
정보사회 발전 지표(러시아, 2015)		
f)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활용 촉진	청각 장애를 위한 디지털 경제(호주, 2016)	
	ICT 활용 사회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러시아, 2016)	
1.2	a) 브로드밴드 서비스 접근성 향상	
	b) ICT 소외 계층 지원	청각 장애를 위한 디지털 경제(호주, 2016)
		ICT 활용 사회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러시아, 2016)
		어부를 위한 재난정보접근 향상(베트남, 2016~2017)
c) 초고속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접근성 향상	초고속 차세대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싱가포르, 2017)	
1.3	a) 개인 ICT 역량 제고	
	b) 공공 기관 ICT 접근성 향상	
	c) 초고속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서비스 향상	
	d) 개인 ICT 활용 창조성 향상	
1.4	a) ICT 서비스 도입 독려	
	b) 혁신과 창업 문화 발전 촉진	
	c) 인터넷 기업가 정신 발전 촉진	
<b>2. 안전하고, 회복가능하며 신뢰받는 ICT 환경 증진</b>		
2.1	a) 지역 인프라 연결성 및 탄력성 제고	
2.2	a) 사이버 보안 경쟁력 독려	CSIRT 지표(미국, 2016)
	b) 새로운 사이버 위협 관리 정보 공유	
2.3	a) 산학연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활동	안전한 공공 Wi-Fi 활용(말레이시아, 2016)
	b) "APEC 사이버 보안 인식의 날" 활동	사이버보안인식의 날 행사

	행동 전략	사업명(담당 회원경제, 완료 기한)
2.4	a) 취약계층 보호전략 개발 및 정보공유	안전하고 신뢰받는 ICT 활용환경 구축(일본, 2015)
	b) 올바른 ICT 사용자 정보 활용 방법 탐색 및 경험 공유	상동
	c) 스편 대응책 연구 및 경험 공유	상동
	d) ICT 활용에 대한 사용자 자신감 향상	상동
2.5	a) 역내 활동 경험 공유	전자 정부(일본, 계속 사업으로 2020년 완료)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태국, 2016)
	b) 역내 사이버위협 대응책 및 개인정보보호 이해 강화	
<b>3. 역내 경제통합 증진</b>		
3.1	a) ICT 인프라 품질 향상	APII Testbed 사업(한국, 지속사업) <sup>24)</sup> 고정 및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품질(페루, 2016)
	b) ICT 활용의 다양성 촉진	전자 정부를 위한 다국어 이메일 주소 활용(중국, 2016)
3.2	a) 용이한 규제 환경 촉진	
	b) APEC 회원경제 내 상호운용성 촉진	MRA TF 활동(LSG, 전체)
	c) 국제 데이터 표준 발전 촉진	
	d) APEC 역내 모바일 로밍 요금 감소	아태 지역 국제로밍 서비스(페루, 2016)
	e)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을 위한 방법 모색	
3.3	a) APEC 역내의 보편적 ICT 기술인식 프레임워크(ICT SRF) 촉진	연결성 향상(말레이시아, 2017)
3.4	a) APEC 역내 오픈데이터 촉진	규제원탁회의:오픈데이터(필리핀, 2015)
	b)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c) 사물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 연결성 향상	긴급상황을 위한 IoT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러시아, 2017)
		사물인터넷 자동차(중국, 2017)
		산업원탁회의: 사물인터넷(필리핀, 2015)
d) 역내 디지털 콘텐츠 지원		
e) 높은 수준의 IPv6 도입 촉진	IPv6 도입 전략(싱가포르, 2016)	

24) 아시아태평양정보인프라(APII): 1994년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APEC을 하나로 잇는 국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1995년 TELMIN1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서 초석이 마련됐으며, 1996년 APII(아태정보통신인프라) 협력센터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추진을

행동 전략		사업명(담당 회원경제, 완료 기한)
<b>4. 디지털경제 및 인터넷경제 제고</b>		
4.1	a) IC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향상 촉진	차세대 방송통신: 4K/8K(일본, 2016)
	b) 역내 스마트 도시 발전 촉진	스마트 도시(싱가포르, 2017)
	c)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사업적 활용 촉진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싱가포르, 2017)
	d) 주파수 희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촉진	TV 화이트 스페이스(싱가포르, 2015)
	e) 디지털경제 지원 위한 ICT 산업 측정기준 촉진	디지털 경제의 ICT 산업: 스타트업(싱가포르, 2017)
4.2	a) 전통 산업의 발전을 위한 ICT 활용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혁신적 경제발전 활성화(중국, 2016)
	b) 통신 산업 및 기타 산업 간 교류 강화	
	c) ICT 활용 정책에 대한 경험 공유	사물인터넷 워크숍(중국, 2015)
4.3	a) ICT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 발전	
	b)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발전	
4.4	a) ICT를 통한 금융·사회 서비스 발전 촉진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혁신적 경제발전 활성화(중국, 2016) 정보사회 발전 지표(러시아, 2015)
	b) 새로운 경제분야 혁신에 용이한 환경 구축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혁신적 경제발전 활성화(중국, 2016)
<b>5. 협력 강화</b>		
5.1	a) 무역투자위원회(CTI) 협력	
	b) 인터넷경제 임시조정그룹 협력	
	c) 전자상거래작업반(ECSG) 및 반테러리즘 TF 협력	
	d) 긴급대응작업반(EPWG) 협력	긴급상황을 위한 IoT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러시아, 2017) 기존 긴급상황프로그램 상호운용가능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구축(러시아, 2015)
	e) 보건작업반(HWG) 협력	
	f) 서비스작업반(SG) 협력	
	g) 재무장관절차(FMP) 협력	
	h) 중소기업(SME) 작업반 협력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행동 전략	사업명(담당 회원경제, 완료 기한)
5.2	a) ICT 지도자 지식 공유를 통한 국경 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	
	b) ICT 산업, 관련 다자 조직, 그리고 인터넷 기술 및 관리 조직과 협력	

자료: APEC TEL52 총회 문서<sup>25)</sup>(KISDI 재구성)

이러한 도식을 통하여, 향후 회원경제는 사업 계획 및 수행에 대한 효율적인 가이드 라인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선분야 1.3 및 1.4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사업을 개발하여 도입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 목표 성취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우선분야 1.3의 세부 실행전략 d)개인 ICT 활용의 창조성 향상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핵심 정책과도 높은 관련이 있는 바 우리가 추진중인 사업을 활용하여 제안하는 것도 매우 높은 시의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진행중인 정책을 활용한 APEC 사업 추진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정보통신 번영과 협력을 이루고, 우리나라의 선도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3. 한국의 정책 성과

한국은 APEC TELMIN10는 물론 차후 개최된 TEL 회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였다.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 내용에 한국이 기여한 바와 TELMIN10에서의 수석대표 발표, 그리고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 추진 과정에서 한국 사업이 기여한 바가 있다.

#### (1) 전략실행계획에의 기여

한국은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의 성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

25) APEC TEL52 총회 문서 “Prioritization and Timing SAP 2016-2020\_Updated on 23 Oct 2015”.

26) 미래창조과학부(2015a)



여 우리측 정책 관련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ICT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제고를 위한 창조(Creativ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내용을 실행계획에 포함시켰다. 실행계획 우선 분야 중 1번(ICT 혁신 개발 및 촉진)의 세부 목표 및 2번(디지털 경제 및 인터넷 경제 제고)의 서문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다.<sup>27)</sup> 이러한 핵심 문서에 관심 키워드를 담은 것은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을 APEC 정보통신 협력 방안에 반영시킨 것으로 아태 지역 협력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우선분야 1번 “ICT 혁신 개발 및 촉진” 세부 목표 중 MRA(상호 인정협정) TF에 대한 내용<sup>28)</sup>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한국은 MRA가 회원경제 통합을 위한 주요한 기반임을 근거로 해당 부분 삭제를 반대하였으며, 이에 회원경제가 모두 합의한 바 있다. 우선분야 3번 “역내 경제통합 촉진”의 세부 행동 전략에 사물인터넷 및 연결성 추가와 관련 한국은 정부 정책과의 높은 관련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해당 문서의 전문에 “연결 사회(connected society)”를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 후자가 현재 및 미래의 트렌드를 더 잘 반영한다는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회원경제의 동의를 통해 승인되었다. 특히 동 내용은 장관회의 세션에서의 우리측 발표와도 관계가 높았던 만큼, 주목할 만한 용어 변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27) 우선 분야에는 각 우선분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서문 및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측 반영 부분은 아래와 같음. 1번분야 세부목표 d) Promote creativity among ICT users to encourage innovation.(혁신 촉진을 위한 ICT 사용자의 창조 증진), 4번분야. Enhance the Digital Economy and Internet Economy: The TEL WG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 vibrant Digital Economy. In order to promote smart, green, inclusive, creat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the TEL WG also supports raising the overall level of ICTs industry development and the extensive integration of ICTs with other industries.(디지털경제의 스마트, 그린, 포용적인, ‘창조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8) 우선분야 1 ※ Exchange information on new technologies and issues,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TEL WG MRAs.

## (2) 공동번영 제안

APEC TELMIN10에서는 “APEC TEL의 미래”를 주제로 3월 30일 2개의 세션을 통해 각 회원경제 수석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참석한 회원경제의 장관 및 수석대표들은 각 회원경제가 직면한 ICT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의 ICT의 역할에 주목하고 주제에 따라 각국의 정책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장관회의 세션1에 참가하여 ‘더욱 연결되고 번영하는 APEC(More Connected, Prosperous APEC Economies)’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ICT분야의 발전 상황을 소개하고 ICT를 통해 APEC 역내 경제의 공동번영을 제안하였다. 즉 창조경제를 달성하고 ICT가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K-ICT 전략」<sup>29)</sup>을 소개하고, 회원경제간 ICT 협력 증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APEC과 한국의 교류 협력 및 밀접한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ICT를 활용한 역내 성장과 미래 공동번영을 제안하여, 참가국들의 높은 지지와 주목을 받았다.<sup>30)</sup> 특히 이번 장관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측은 우리측 발표를 동 회의 주제(ICT-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하였고, 미국은 디지털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의 핵심 지역으로 아시아를 지목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의 인터넷 연결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ICT 정책 및 전략의 성공적 이행 및 공유는 APEC의 역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ICT 선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sup>31)</sup>

29) “K-ICT 전략”은 ICT가 주도하는 데이터 경제, 초연결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잠재적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립된 우리나라 핵심 디지털 전략이다. ICBM 기술(사물인터넷(I), 클라우드(C), 빅데이터(B), 모바일(M))의 혁신적 활용이 성장 및 번영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기존 산업 체계와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계획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2015c)

30) 미래창조과학부(2015b)

31) 미래창조과학부(2015b)

### (3) 한국 추진사업의 지속 수행

한국의 APEC TEL 계속 사업인 APII Testbed 사업은 TEL전략실행계획2016~2020의 우선분야 3번 “역내 경제 통합 증진” 아래 세부 목표인 “3.1 연결성 증진(물리적 연결성 증진)”에 부합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APII Testbed 사업은 아태지역 연구망 등을 연동하여 IT 교류 협력 및 선도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APEC 협력 사업으로 1995년 제 1차 서울 APEC 정보통신 장관회의에서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일 간 10G 회선 운영, 망 기반 공동 협력 활용 및 시험 추진 등이 있으며,<sup>32)</sup> TEL 정례회의 시 DSG에서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사업이 장관회의의 성과 문서의 우선분야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것은 높은 의의가 있다. 향후 사업 계획 및 제안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통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책 및 사업을 아태 지역의 장관 수준 목표와도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높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IV.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본 고에서는 2015년 10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의 결과물인 TEL 전략실행계획 2016~2020을 중심으로 장관회의 추진경과 및 결과물 비교, 전략실행계획 세부내용 및 TEL의 후속조치, 한국의 정책적 성과 등을 분석, 점검하였다. 먼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TELMIN은 그간 선언문이라는 결과물이 TEL 업무 방향의 토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장관회의의 전략실행계획 2016~2020은 기존의 선언문을 생략하는 대신 포맷을 활용하여 구성함으로써, 선언문의 간결성과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을 접목하였고, 이는 향후 TEL 업무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전략실행계획은 TEL의 향후 5년간의 업무 및 이행 방향을 담고

32) Progress Report on APEC Projects-APII Testbed Project(TEL40, 2009. 9)

있는 핵심 문건으로, 올해 2차례의 TEL 정례회의를 통해 이미 추진사업 및 담당 운영 그룹을 설정하여 이행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동 전략실행계획에 정책 사항 반영 및 사업 수행에 기여함으로써 앞으로 역 내 의제 논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전략실행계획은 APEC 사무국 뿐만 아니라 회원경제체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로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향후 APEC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 APEC 2015 정상선언문 및 각료선언문에의 연계

TELMIN을 비롯하여 APEC 내 각 실무그룹의 분야별 장관회의는 상위 수준의 회의인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의 논의주제 및 선언문에 장관회의 결과문서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상 선언문에 기재된 내용은 APEC 회원경제의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APEC TELMIN9은 성과 문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 및 “TEL전략실행계획 2010~2015”의 핵심 성과나 주요 내용이 2012년 9월 개최된 정상 회의<sup>33)</sup>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sup>34)</sup>의 각 선언문에 특별히 반영되지 않았다. 미래 사회의 성장 핵심 동력으로서 ICT가 갖는 가치 및 아태지역의 정보통신 역량을 고려할 때, 금번 장관회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정상 선언문 및 각료선언문에 반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관회의 이후 SOM 산하에 인터넷임시조정그룹을 구성하는 등 국제기구 내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TEL의 중심적인 역할과 APEC 그룹 간 협력 계획을 고려할 때, TEL전략실행계획 2016~2020의 “디지털경제 및 인터넷경제 제고”는 TEL의 핵심 목표임과 동시에 아태 지역 발전과 번영

33) 2012 Leaders' Declaration Vladivostok Declaration -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2012. 9. 8~9)

34) 2012 APEC Ministerial Meeting Joint Statement(2012. 9. 5~6)

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도 맥을 함께 하고 있는 위의 내용이 정상선언문 및 각료선언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진할 필요가 있다.

## 2. APEC TEL 활동 관련 정책적 대응

앞서 기술한 전략실행계획 내 우리측의 정책 반영사항이 향후 TEL 업무방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능동적인 의제 설정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인터넷 경제 및 디지털 경제의 흐름과 논의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여 현재 TEL 내 동 이슈 논의와 관련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 사이에서 정책 홍보 등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선언문이 아닌 실행계획이 장관회의 결과물로 수립된 만큼, TEL의 업무가 설정한 방향성 및 의도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차원 보다는 세부 계획에 하나하나 초점을 맞춘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전략실행계획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연구 및 프로젝트 등을 연계시켜 전략실행계획의 세부 목표 업무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태 역내 경제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리, 역사, 정치, 사회적으로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특히 무역관계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APEC내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및 강화해야 한다. 아태지역은 역내통합의 흐름 및 역내협력을 통한 잠재적 혜택을 APEC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만큼 FTA, WTO 등 무역자유화의 프레임워크에 의존성이 큰 우리 입장에서 APEC 주요 회원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APEC은 이름 그대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다른 국제기구와 같이 구속력 있는(binding) 협약 및 의무적인(obligatory) 규정 등을 갖고 있지 않는 점진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이다. 따라서 협력을 하기도 유리하며, 반대로 뚜렷하고 명확한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성격상 어렵다. 결국 낮은 단계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의미있는 협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략실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의미가 있다. 물론 전문가 및 의제 대응을 위한 연구 지원 확대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남상열 (2012), “APEC 정보통신부문(TEL)의 동향과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 (TELMIN 9) 대응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24권 13호, 2012. 7.
- 미래창조과학부 (2015a), ‘두 돌 맞은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사업화 박차’, 보도자료, 2015. 9. 30일자.
- \_\_\_\_\_ (2015b), ‘미래부, 아·태지역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아·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강화 기반으로 활용’, 보도자료, 2015. 4. 3일자.
- \_\_\_\_\_ (2015c), ‘미래부, ICT가 선호하는 창조 한국 실현 「K-ICT 전략」 발표,’ 보도자료, 2015. 3. 25일자.
- 정인억 외 (2007), “국제 연구망 구축 및 국제협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탁연구 07-34, 2007. 12.
- 1995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Seoul Declaration for the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 5).
- 1996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Industry-Gold Coast Declaration (1996. 9).
- 1998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Singapore Declaration (1998. 6).
- 2000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Cancun Declaration (2000. 5).
- 2002 APEC Ministerial Meeting of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 Industry Shanghai Declaration (2002. 5).
- 2005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Lima Declaration (2005. 6).
- 2008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Bangkok Declaration – Digital Prosperity: Turning Challenges into Achievement (2008. 4).
- 2010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 – Okinawa Declaration – ICT As an Engine for New Socio–Economic Growth (2010. 10).
- 2012 APEC Ministerial Meeting Joint Statement (2012. 9. 5~6).
- 2012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 – Saint Petersburg Declaration –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2012. 8).
- 2012 Leaders’ Declaration Vladivostok Declaration –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2012. 9. 8~9).
- 2010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APEC TEL Strategic Action Plan: 2010~2015 (2010. 10).
- 2015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inisterial Meeting–APEC TEL Strategic Action Plan 2016~2020 (2015. 3).
- APEC TEL52 Plenary Session document(15\_tel52\_plen\_036\_ag06\_Prioritization and Timing SAP 2016–2020\_Updated on 23 Oct 2015).
- Progress Report on APEC Projects–APII Testbed Project (TEL40, 2009. 9).
- APEC 홈페이지 (<http://www.apec.org>)
- APEC TEL 홈페이지 (<http://www.apectelwg.org>)